전국 최고 제과·제빵 명인 이원용씨 해남에 제과점 열어

“고향 농산물로 맛·건강 선물 할게요”

“고향 농산물을 원료로 소비자들의 입맛도 사로잡고 건강에도 좋은 새로운 제과·제빵류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제과·제빵 기술자가 고향인 해남에 정착했다. 해남읍 읍내리에서 프랑스 생과자를 뜻하는 ‘피낭시에 제과점(061-537-6262)’을 운영하는 이원용(43)씨가 그 주인공.

경연대회 최고상 10여차례 받아

군에서 제대한 23살때부터 제빵업에 입문한 이씨는 당시 제일로 알아주던 서울 ‘김충복 제과점’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 동경 제과학교와 일본 과자 전문학교를 수료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고 수준의 실력을 연마했다.

이씨의 수상 경력은 화려하다. 91년 서울 국제 빵·과자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데크레이션 전국 경연대회 대상 등 각종 제빵·제과 관련대회에서 받은 최고상만 10여개가 넘는다.

이씨는 기능올림픽 대표선수단과 세계 제빵대회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을 최근 3년간 지도했으며, 한국제과학과와 부산여대 강사 등 후진 양성에도 기여해 왔다.

2년 전 건강이 나빠져 요양차 낙향했던 그는 고향이 좋아 지난 4월 해남 읍내에 가게를 마련했다.

그가 8년전에 국내 최초로 효모를 배양해 개발한 ‘효모빵’은 최근 웰빙열풍에 힘입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 해남 고구마를 이용한 고구마 케이크와 쿠키 등을 신상품으로 개발하기도 했다.

효모빵·고구마 케이크 등 인기

자신의 가게 안에 학생이나 가족단위 손님들이 직접 케이크 제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그는 “고향 선후배들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해남의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욕을 과시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지난 4월 고향인 해남에 정착해 농특산물을 원료로 새로운 제과·제빵류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원용씨.

‘가학산 원숭이’ 돌아온다

해남군 보호시설 완공

지난 10월 11일 생포돼 경기도 한 동물원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해남 ‘가학산 원숭이<사진>’가 이달 말께 돌아온다.

해남군은 최근 계곡면 가학산 휴양림 주차장에 보호시설을 완공함에 따라 ‘가학산 원숭이’를 데려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호시설은 길이·폭 6m, 높이 5m가량으로 수컷 원숭이 한 마리를 기증받아 함께 생활토록 하고, 옆 우리에는 꽃사슴 한 쌍도 사육할 방침이다.

가학산 원숭이는 생포후 3개월간 경기도 일산 주주동물원에서 길들이기 훈련을 받아왔다.

지난 2001년 영암군 관광시설을 탈출했던 해남 가학산 원숭이는 최근 등산객들을 공격, 3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악명을 떨쳐오다 순천 야생동물구조센터 포획팀에 의해 생포됐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활기찬 노년 보내세요 보성군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을 위한 ‘장수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력면 용정리 살래마을을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선정, 벼와 보리 짚을 이용한 전통생활용품 제작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내년부터 오동도 입장료 폐지
여수시 7억5천만원 재정 부담

시의회 등 국비지원 촉구

내년부터 전국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의 입장료 수입이 사라지게 돼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만 입장료 폐지로 인한 감소분을 국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85년부터 국립공원 오동도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여수시는 입장료 감소분 만큼을 시비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시청 직원 31명으로 구성된 오동도 관리사업소의 1년 예산은 2006년 기준 12억9천만원이며 이 중 7억5천만원 정도를 입장료 수입으로,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와관련 여수시 의회는 최근 입장료 수입 감소분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편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자치단체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입장료 수입 감소분에 대해 전액 국비를 지원, 보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동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유료 입장객 51만2천653명에 7억39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기록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구례 청년회의소 회장단 이·취임식

구례 청년회의소(JCI) 회장단 이·취임식이 지난 20일 지리산 프라호텔에서 열렸다.

최승용(40·사진)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구례 JC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나주시 지역경제 지원조례 제정

나주시가 최근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는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사업 지원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대출 금리 보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진흥과 재래시장 육성법 등 개별법을 한데 묶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은 나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또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편익시설 지원과 업소 불량간판 교체 등 환경개선지원, 버스와 택시업계의 경영지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시책 사업비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상품권 발행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